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다문품(多問品) ③

是能散憂 亦除不祥 欲得安穩 當事多問

들음은 근심과 상념을 흩날려버리고 상사롭지 못한 것을 없앤다

研創無過 身箭無過 是法莫能 離從多問

도끼에 찍힌 것이 근심만 못하고 활로 쏘는 것이 어리석음만 못하다

盲從是慢 聞者從慢 亦轉世間 如目將無

“힘써 배우고 많이 들은이 섬기면 저 언덕에 이르는 지혜 얻게된다”

장님도 들음을 좇아 눈을 뜨고 어둠속의 사람도 이를 좇아 불을 얻으면

모든 세상사람도 인도받나니 눈튼 이가 소경을 이끄는 것과 같다

是故可捨 難學高樂 務學助道 是名親德

이런 까닭에 어리석음을 버려야하고 교만한 권세 부귀패락을 여의며 힘써 배우고 들은 이를 섬기면

이름 일러 덕을 모아 쌓는다고 한다

信能戒財 是法雅士 斯道明說 如是解天

믿음·참회·계율·뜻의 재물 이는 법을 닦는 선비의 명예 이 도를 지혜로운 이가 밝히려니

이같이 하면 하늘 세상에 오르도다

愚不修行 亦不樂善 信能助善 信施助善

어리석은 행을 행하지도 않고 선을 좋아하지도 않으니

믿음과 행이 있는 이는 성인의 기쁨을 받고

이름이 계율과 더불어 짝하고 지혜로운 뜻으로 능히 행하니

이것이 법을 닦는 선비의 명예 이 도를 지혜로운 이가 밝히려니

이같이 하면 하늘 세상에 오르도다

從是到彼安 宗지도피안

어리석음이 천지행을 닦지 않고 또한 배움도 기리지 않는다

信者真人 念法所住 近者意得 智壽壽中

믿는 이는 참으로 사람의 어른 법을 생각하니 머무는 곳이 권하고

信能得道 法致滅度 從聞得智 所到有明

믿음은 능히 도를 얻게하고 법은 능히 적멸에 이르게하며

이름이 계율과 더불어 짝하고 지혜로운 뜻으로 능히 행하니

信能度難 攝受難者 精進除苦 慧到彼岸

믿음은 능히 생사의 뜻을 건너게하고 마음 다잡음은 선장이 되며

이름이 계율과 더불어 짝하고 지혜로운 뜻으로 능히 행하니

이름이 계율과 더불어 짝하고 지혜로운 뜻으로 능히 행하니

信之與戒 慧能修行 健夫度難 從是脫離

믿음이 계율과 더불어 짝하고 지혜로운 뜻으로 능히 행하니

이름이 계율과 더불어 짝하고 지혜로운 뜻으로 능히 행하니

이름이 계율과 더불어 짝하고 지혜로운 뜻으로 능히 행하니

이름이 계율과 더불어 짝하고 지혜로운 뜻으로 능히 행하니

이름이 계율과 더불어 짝하고 지혜로운 뜻으로 능히 행하니

이름이 계율과 더불어 짝하고 지혜로운 뜻으로 능히 행하니

이름이 계율과 더불어 짝하고 지혜로운 뜻으로 능히 행하니

이름이 계율과 더불어 짝하고 지혜로운 뜻으로 능히 행하니

이름이 계율과 더불어 짝하고 지혜로운 뜻으로 능히 행하니

고 송스님 (파계사 조실)

“옛날에는 벌금내며 주지 안하려 했어요 명리 집착하니까 승가 위계 무너져요”

해가 바뀌니까 귀도 잘 안들리고 몸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90여년 몸뚱이리 끌고 다녔으니 어지간히도 끌고 다녔지. 곧 몸뚱이 때가 다가온것 같아요. 공부해 놓은 것은 없고... 한살이라도 젊을 때 공부 열심히 해서 후회없도록 하세요.

나를 이렇게 나이 들어도 시봉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빨래나 요리도 직접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시봉이 있으면 게을러져서 스스로 하고자 하는 생명이 점점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가능한한 자영독립적 생활을 하려고 하지요.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누가 깨닫게 해주 기도 하고 가끔 여행도 다녀옵니다. 마음은 늙는 법이 없어요.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 하는 것이 한계를 만들뿐이지요.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일상의 사소한 일거리가 다 공부자료입니다. 공양 주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공양주일도 현명해야 해요. 내가 공양간소임을 맡았을 때는 밥과 국을 더도 덜도 없이 꼭 맞게 했습니다. 김나는 것만 봐도 밥이 된지 진지 않았어요.

지극한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면 요리가 저절로 잘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요리는 맛과 빛깔도 좋을 뿐더러 생명이 담겨져 먹는 사람에게 환기를 줍니다. 먹는 얘기가 나왔으니 좀더 하겠습니까. 사람들간에 호흡을 도모하려면 먹는 일이 원만해야 합니다. 화합할 화(和)자를 풀이하면 비 화(禾)에 입 구(口)를 합친 것입니다. 배고플 때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내다가도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마음에 맞힌 것들이 웬간히 풀어집니다. 참 묘한 법입니다. 그래서 대중공양의 공덕이 헤아릴수 없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16세되던 해 머리를 길게 땀아 늘어뜨렸던 저는 파계사로 입산했습니다. 당시엔 쉽게 머리를 깎아 주지 않았습디다. 행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발심해서 절에 오면 한달이나 두달 정도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살펴보고 쓸만하다 싶으면 큰방에서 사발시켜 사미계를 주었지요. 당시 사미계는 출가사찰에서, 비구계는 본사에서 받았어요. 행지라는 말은 해방 후에 많이 쓰였지요. 요새는 행자를 집단으로 훈련시킨다고 아난들인데 그렇게 해서 행자들 교육이 제대로 될지 걱

정입니다. 뒷날 수행의 모든것이 이 행자 시절에 이뤄지는 것인데 말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인간을 교육시킬 때는 마음과 마음으로 정성드려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스승을 3년이상 시봉해야 강원에도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때는 스승이 상좌의 웃도 해 입고 양식도 대주었지요. 돈없으면 상좌도 못 들었습디다. 그러나 한번 들인 상좌는 탁발하더라도 잘 공부시켰습디다.

공양주를 하거나 품팔이를 해서 양식과 학비를 마련해 주었지요. 그러나 스승과 제자사이의 정이 남달랐지요. 당시엔 상좌 때버린다는 은사의 말이 제일 겁이 났습디다. 상좌 때이면 죽는줄 알았어요. 그러나 은사 말이면 무슨 말이든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중노릇 제대로 익혀 스승을 따라가려고 무진 애를 썼지

- 1906년 10월 생
· 1922년 상운스님 은사로 득도
· 용성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 한암스님 법사로 법맥전수
· 금강산 오대산 원불사 등에서 수행
· 現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생활을 떠나 道를 구하는 것은 마치 얼굴에 쓴 안경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는 스님들간에 단결이 잘되고 인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가 되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정신 도량인 절을 통제하려고 30본산을 만들고 주지를 임명하고부터 패가 나뉘고 분열이 시작됐어요.

옛날에는 공부에 방해된다고 주지자리도 서로 안하려고 해서 벌금을 매겼습디다. 주지를 안 맡는대신 쌀 서말을 내놓아야 했지요. 생사일대사를 통달하려면 사람이 주지니 뭐니 그렇게 뭐 필요가



있습니까? 주지자리를 중요시 하고 명리에 집착하니 승가의 위계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명리(名利)라는 것이 달팽이 쪼위에 집짓는 것과 같이 허망한 것입니다. 달팽이가 목을 안으로 밀어넣으면 집이 일시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지식을 찾아 참구하거나 탁마하는 가풍이 되새되고 다 자기가 도인인양 손끝이나 까닥하지 않고 인사받기 바쁘지요. 어떤 젊은 스님들은 나이드 노보살들에게 뻗뻗하게

앉아 심배를 받아요. 그거 안되는 말이지요. 내게 법을 전해주시 한암선사와는 붓은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한암스님은 1926년 오대산에 들어갔는데 만공스님회상에 있던 나도 공부하러 오대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오대산에는 석호스님 탄허스님 탄옹스님 등이 계셨지요. 한암스님은 내 법명인 '종협(宗協)'을 빚어 대법계를 내리면서 고송(古松)이라는 법호를 지어 주셨습디다.

경전도 보지 않고 좌선도 안하면서 묵묵히 마주 하는 이것이 어떤 종(宗協)이고? 바람도 없는곳에 풍류가 넘쳐나니 천년 푸른봉우리 고송이 빼어나도다

不讚金文不坐禪(부독금문좌선) 無言相對是阿宗(무언상대시하종) 非風流處風流定(비풍류처풍류정) 碧峰千年秀古松(벽봉천년수고송)

경전도 보지 않고 좌선도 안하면서 묵묵히 마주 하는 이것이 어떤 종(宗協)이고? 바람도 없는곳에 풍류가 넘쳐나니 천년 푸른봉우리 고송이 빼어나도다

협찬 : 김 옥 례

생활 속의 불교 117

‘나’ 라는 액자속의 소중한 그림들

“누구나 다 본래는 그대로 놓고간다. 그래서 사실은 들고 있는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다. 그러나 무엇이 있는 양, 실재하는 것이 양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그만 그 생각에 걸려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 고생을 하기 때문에 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짊어지고 다니지만 알지못한 놓으라는 말도 실은 군더더기일 뿐이다.”

가령 돈이라는 것도 그렇다. 내게 거금이 있다해도 그 돈은 언젠고 나갈 것이 영원히 내 것일 수 없는 줄을 안다면 돈을 쓰는 사람이 되지 돈에 쓰이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돈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다시 착을 두지 말라. 놓아라 할 것도 없다. 가는 것 붙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는데 새삼 놓으라고 하겠는가. 그냥 지혜롭게 살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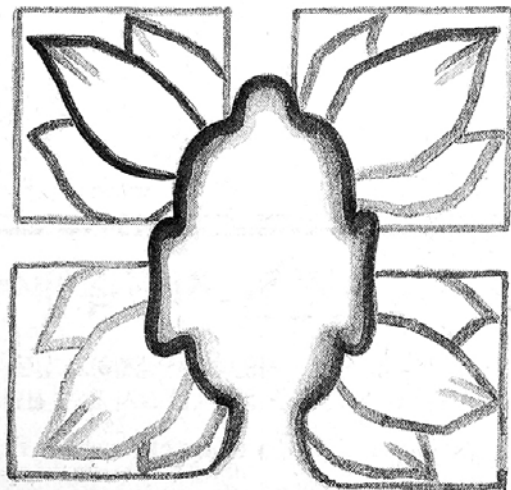
가령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다. 그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정해진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으면 행복하고 안맞으면

불행한 게 아니라 스스로 정해 놓은 잣대를 가지고 나는 행복하다. 혹은 불행하다고 판단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잘났으니 못났으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애초부터 잘나고 못나고의 구별이 있는 게 아니라 잘났다는 생각, 못났다는 생각을 낳는 분별의 잣대에 따라 행과 불행이 교차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별의 잣대가 바뀌면, 행, 불행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잣대마저 놓아버리면 행이니 불행이니 하는 말조차도 붙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더구나 그런 분별의 잣대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나’ 라는 존재를 떠받드는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던가. 생명·건강·권속·재화·명예·일터와 같은 것들 말이다. 그것은 ‘나’ 라는 액자에 들어 있는 소중한 그림과 같아서 우리는 늘 그것의 보존에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그중 어느 하나라도 잃게되면 곧 충격과 비탄에 젖게 마련이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것들을 놓고 갈 수 있단 말인가.



놓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요 잃는다는 것은 곧 두려움이 아니던가.

놓으라는 것은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돈을 버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건강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도 아니다.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명예나 일터를 우습게 여겨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나’ 라는 틀을 깨라는 의미이다. 본래 내 것으로 고정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바람개비처럼 돌아간다. 그것이 불법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는 바람개비에 ‘나’ 라는 못질을 해서 그것을 내 액자에 가둬 놓으려고 한다. 그 성법에 따라 행이니 불행이니를 말한다. 놓으라는 것은 그 ‘나’ 라는 상을 버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이 그동안 무엇에 의존하며 살아 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의 대부분은 그런 순간에도 오직 잃어버릴 대상에만 집착할 뿐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커녕 오히려 대상에 더 다가가고 대상에 더욱 집착한다. 놓는 게 아니라 붙잡고 매달리고 애걸하게 된다. 따라서 갈수록 발목이 잡히고 자신의 삶은 더욱더 진수령으로 빠져들게 된다.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놓으라는 것은 집착하는 마음의 짐을 벗어 놓으라는 것이다. 본래 내 것으로 고정된 것은 없으니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의 집합(集合)처럼 ‘나’ 라는 틀에 갇힌 대상들을 풀어 놓으라는 것이다. 내가 무엇에 의존하면서 나오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 보고 거기에 묶여 살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풀려나서 해방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누구나 다 본래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협찬 : 김 옥 례